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4. 24.(금) 즉시 보도 가능		
소상공인과	소상공인과장	정순	☎ 710-2520	
	경영창업지원팀장	김수정	☎ 710-3901	

제주도 창업지원 실무협의체 가동..!모두의 창업 도민 참여 확산

- 15개 기관 한자리, 창업 거버넌스 강화..각 기관 전문성 결집 -
- 중기부 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 도민 참여 확산방안 등 논의 -

-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창업 지원망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.
-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‘창업지원 실무협의체’ 1차 회의를 열고,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핵심사업인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 도내 참여 확산을 위해 15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.
 - 이날 회의는 제주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15개 창업지원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-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.
 - 일반기술과 로컬 창업 분야를 구분해 5,000명을 통합 공모한 뒤 단계별 사업화 보육과 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 18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 - 공모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누리집(www.modoo.or.kr)에서 진행 중이다.

※ 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 추진 개요

- (통합공모) 일반.기술/로컬창업 분야별 구분 모집(5,000명) → (보육) 단계별 사업화 지원.보육프로그램 운영* → (대국민오디션) 최종 우승자(18명) 선발
- 추진일정 : 공모(26. 3~5월)→평가 및 선발.보육(5~8월)→지역·권역·파이널오디션(9~12월)
- * 운영기관 :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내 대학(창업보육센터), 액셀러레이터, 공공기관 등 선정기관

□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·넥스트챌린지·엠와이소셜컴퍼니·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4개 기관이 운영·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.

○ 이날 참석 기관들은 예비창업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, 유관기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(SNS)을 활용한 홍보 확대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.

□ 아울러 제주도는 향후 5개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'제주특별자치도 창업·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' 수립과 관련해, 현장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FGI(집중그룹 인터뷰) 구성·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.

○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 분야와 중점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.

□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“협의를 통해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가 도내 혁신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이번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도 창업지원 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창업지원 총괄협의체 회의에 이어 열렸다.